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눅6:39-45)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³⁹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⁴⁰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⁴¹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⁴²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⁴³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⁴⁴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질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⁴⁵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어떤 사람이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실행할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is appropriated to*). 그에게 무슨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평소 생각뿐 아니라 마음도 먹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가 그걸 하는 그때 그는 머리(*the understanding*)와 가슴(*the will*)으로, 혹은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애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머리가 자신을 가슴과 결합(*conjoin*)하는, 즉 머리의 생각이 가슴의 애정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곧 후자가 전자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P.80)

※ DP(*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위 80번 글에 대한 *Wunsch*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Nothing that a person only thin

눅6:39-45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ks, not even what he thinks to will, is appropriated to him unless he also wills it so that he does it when opportunity offers. For when a man then does it, he does it from the will by the understanding or from affection of the will by thought of the understanding. If it is something thought only, it cannot be appropriated, for the understanding does not conjoin itself to the will, or the thought of the understanding to the affection of the will, but the latter with the former

이는 이 책 다섯 번째 주제인 ‘사람이 자기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 법칙 중 하나이다’(It Is a Law of Divine Providence That Man Shall Act from Freedom According to Reason) 중 세 번째 소주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마치 그 자신과 그의 리메인스(remains)처럼 그의 것이 된다’(Whatever a man does in freedom according to his thought, is appropriated to him as his and remains.)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산골 마을인 나사렛의 목수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나dana엘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궁벽한(窮僻, 매우 후미지고 으스스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일종의 조롱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천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모든 가르치는 자의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인류의 큰 스승으로 여기는 까닭은 그분의 말씀과 삶이 진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부모로, 또는 직장의 상사로, 그리고 직업적인 교사로, 아니면 성직자로 본의 아니게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자의 그런 고민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세상에는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후배가 선배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순자’(荀子)의 ‘권학편’(勸學篇)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주님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라 하시는 것은 모든 진리와 선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진리 앞에 겸손함을 뜻합니다. 사람이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시편 22편 2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처럼 주님은 겸손한 자를 배불리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라야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선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온전

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에 따라 주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통해 매일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모든 가르치는 자의 모범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 안의 여호와께 늘 겸손하셨고, 또한 단 한 번도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지옥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40절 말씀이 좋은 선생에 대한 말씀이라면, 39절은 잘못된 선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영적 의미로 맹인은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러므로 내면에 진리의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빛이 없는 사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했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거짓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41절, 42절에서는 영적 맹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저지르는 악을 말합니다. 나무는 본래 선을 뜻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들보 역시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서는 반대로 악을 뜻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짓된 행동을 말합니다. 거짓된 행동에는 거짓말이나 위선, 또는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 반복적인 실

수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웃의 거짓은 좀처럼 용납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십니다.

※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중앙지점으로 불려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주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 거의 다 오십보 백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십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모두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십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을 의지, 자신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의 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의 빛이 흘러 들어와야 하고, 그때 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눈 밝은 선생이 되어 이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십니다.

다음 43절, 4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⁴³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⁴⁴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에서 나무는 영적인 의미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말씀에서는 좋은 열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맹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하신 것은 그래서입니다. 가시나무와 짙레는 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뿌 나무이고,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삶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내면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은 오직 주님만 아시는,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눈 티는 보고 자신의 눈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맹인이나 못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은 물론, 이웃 구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하고, 무엇보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흘러들어와 내면에 쌓입니다. 본문 45절에서 주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십니다. 내면에 선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요, 내면에 악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부정적인 말,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상대를 배려하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의도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중요합니다. 생각이나 의도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람의 생명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15:11)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입은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잠시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그의 생명이 바뀝니다.

최근에 어떤 대기업 회장 가족의 언행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 지난 2018년 대한항공 회장家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점점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그 죄가 다시 더 큰 죄를 부르는 식으로 그들의 인격이 점점 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나 행동이 그를 영적으로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빠지던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영적인 맹인이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밝히 보게 해주시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빼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본

2018-05-20(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3:10)

설교

2023-01-28(D7)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